

지식경영의 적용을 통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전략

황인정*, 이명호*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경영학부

Abstract

산업혁명 이후 기업경영에 있어 부가가치의 창출요소는 노동·토지·자본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Internet을 통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물질의 소유가 아닌, 물질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즉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제고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식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경영을 기업에 도입하는 일련의 절차와 무형의 지식을 평가하는 이론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별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수많은 재원이 필요한 연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화된 지식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적 지식은 조직원들에게 체화되어(embodied) 있고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업은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인트라넷(intranet)을 구성하거나, 학습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무한경쟁의 시대상황과 산업시대와는 다른 유연한(Flexible) 노사문화 속에서 조직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식을 경쟁력, 나아가서는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의 공유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식경영을 현실적으로 기업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체화된 핵심적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몰입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개발하였다. 이 메카니즘은 조직원들의 지식창출과 축적 및 공

유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에 있어서 각각의 과정을 분리하여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고려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보조하에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하여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반도체산업의 경우를 사례 분석하여 외형적 투자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연구개발전략이 필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개발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반도체 산업에 특화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첫째,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경영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산업의 특징상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전략에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며, 셋째로는 WTO체제하에서 직접적인 정부개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정책결정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고, 둘째, 반도체 산업으로만 국한시켜 연구개발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그러한 전략의 산업전반에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제약이 있다.

발표희망분야 : 지식경영, 연구개발

주 소 :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77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경영학부

전 화 : (042) 866-6324

FAX : (042) 866-6340

E-mail : beast@icu.ac.kr